

전체 개요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 조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조세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에는 국내 자원 동원 현황을 추적하고,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해 SDG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세 정책 및 개혁 방안을 안내하는 핵심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2021 아시아태평양 조세수입 통계”에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24 개 국가의 조세수입 자료가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상세히 나타나 있으며, 해당 국가로는 호주, 부탄,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쿡 제도, 피지,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태국, 토켈라우, 바누아투 및 베트남이 있다.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의 국민부담률

2019 년 아시아-태평양 24 개국 평균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OECD 및 중남미(LAC) 평균(각각 33.8%와 22.9%)보다는 낮고, 아프리카 30 개국 평균(2018 년 기준 16.6%)보다는 높은 21%를 기록했다. 24 개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부탄의 10.3%에서 나우루의 48.2%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대다수 아시아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일본(2018 년 기준 32.0%), 한국(27.4%), 몽골(24.2%), 중국(22.1%)을 제외하면 아시아-태평양 24 개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에 반해 태평양 10 개국 중 파푸아뉴기니(12.4%), 바누아투(17.1%), 토켈라우(19.2%) 및 솔로몬 제도(20.4%)의 4 개국 국민부담률은 아시아-태평양 24 개국 평균보다 낮았다.

2018 년부터 2019 년까지, 2019 년 자료가 제공된 22 개 국가 중 3 분의 2 이상의 국가(15 개국)에서는 국민부담률이 낮아졌다. 6 개 국가에서는 국민부담률이 1%p 이상 낮아졌으며 부탄, 중국(사회보장부담금 제외), 쿡 제도, 피지, 사모아 및 솔로몬 제도가 이에 해당됐다. 최대 하락세를 기록한 3 개국 중 2 개국인 쿡 제도와 부탄에서는 2019 회계 연도에 2020 년이 일부 포함되면서 이러한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 즉, 쿡 제도에서 3%p 가 하락한 것은 COVID-19 로 인한 여행 제한 때문에 관광업이 무너지면서 조세수입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부탄의 경우,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세수입이 하락하면서 국민부담률이 2.3%p 낮아졌다. 솔로몬 제도가 3.6%p 로 최대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총선 기간 중 경제 활동이 하락하고 목재 수출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었다.

2019년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7개국 중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곳은 나우루와 토켈라우(각각 12.9%p, 1.2%p)였다. 나우루에서는 지역심사센터(Regional Processing Centre)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율 증가로 국민부담률이 높아졌다. 토켈라우의 국민부담률 증가는 일반적인 연봉 인상에 따라 소득세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5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는 1%p 미만이었다.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24개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중 14개국은 국민부담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최대 증가폭을 나타낸 국가는 한국(5.0%p), 일본(5.5%p, 2010년-2018년), 사모아(6.2%p), 몰디브(9.6%p) 및 나우루(2014년 이후 39.8%p)였다. 동 기간 중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및 카자흐스탄의 국민부담률은 최대로 하락했는데(각각 4.1%p, 4.5%p, 7.1%p), 이는 모두 법인세(CIT) 수입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파푸아뉴기니와 카자흐스탄의 자원 가격이 하락하고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 일부가 인하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의 조세체계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평균 총 조세수입의 49.8%에 달하고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조세수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 30개국(2018년 기준 51.9%)과 중남미(LAC) 국가 평균(50.3%)과 비슷하고 OECD 평균(2018년 기준 32.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범주 내에서 총 조세수입 중 부가가치세(VAT)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아시아-태평양 24개국(22.8%)이 아프리카 30개국(2018년 기준 29.7%)과 중남미(28.0%)보다는 낮고 OECD 평균(2018년 기준 20.4%)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소득세(PIT) 수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 조세수입에서 평균 17.0%를 차지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30개국 평균(2018년 기준 17.5%)과 비슷하고 중남미 평균(9.1%)보다는 높으며 OECD 평균(2018년 기준 23.5%)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법인세 수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 조세수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20.1%를 기록했다. 이는 아프리카 30개국 평균(2018년 기준 19.2%)과 비슷하고 중남미(15.5%) 및 OECD 평균(2018년 기준 10.0%)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태평양 국가의 개인소득세(PIT)는 법인세(CIT)보다 총 세수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피지는 예외). 반면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PIT보다 C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사회보장부담금(SSC)은 대다수의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에서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총 조세수입의 6.6%를 차지했다. SSC를 부과하는 태평양 국가는 없었으며 이 보고서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SSC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 4개국에서는 총 조세수입에서 SSC의 기여도가 15%가 넘으며 일본(2018년 기준 40.2%), 중국(27.5%), 한국(26.7%) 및 몽골(19.8%)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의 세외수입

이 보고서에는 16 개 국가(부탄, 쿡 제도, 피지, 카자흐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태국, 토켈라우, 바누아투 및 베트남)의 세외수입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2019 년 세외수입은 GDP 의 10%가 넘었으며 사모아(11.0%), 쿡 제도(15.3%), 부탄(19.2%), 바누아투(24.2%), 나우루(85.2%) 및 토켈라우(220.1%)가 이에 해당한다. 7 개 국가(부탄, 쿡 제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토켈라우 및 바누아투)에서는 보조금이 2019 년에 중요한 조세수입원이었는데, 총 세외수입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재산관련 소득은 싱가포르(85.7%), 카자흐스탄(78.1%), 나우루(53.8%), 태국(52.6%) 및 토켈라우(51.2%)에서 세외수입의 최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필리핀, 피지 및 몽골에서는 그 기여도가 40% 이상이었다.

특별 분석: COVID-19 시대의 새로운 역내 과제

특별 분석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COVID-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특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관리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과제를 조명한다. 해당 내용을 다룬 장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내 자원 동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본다. 그러한 방안으로 중기 세수 확보 전략 수립, 조세 행정 디지털화, 국제 조세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등이 제시된다. 최근 출범한 ADB 아태지역 조세 허브(Asia-Pacific Tax Hub)는 역내 국가들이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원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blication is available at: <https://oe.cd/revstatsap>